

문화

갯벌... 천상이 내린 한쪽의 산수화

광주일보 선상근 기자 28일까지 서울서 개인전

밀물과 썰물이 조금씩 밀리고 당기며 오랜 시간 새긴 갯벌 위 무늬는 천상이 내린 한쪽의 산수화다. 물에 쓸려가고 끝이 파인 흔적은 수목이 보여주는 장엄한 산자락 같고, 곱게 다듬어진 개흙은 말 그대로 담채다. 여기에 군데군데 남겨진 바다 새의 발자국은 자연이 찍은 화룡점정이다. 갯벌의 아름다움을 담은 항공사진을 선보이고 있는 광주일보 선상근(보성주재) 기자가 오는 28일까지 서울 공근해결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송고미의 재발견'을 주제로 비행기를 타고 보성 특량만, 순천만 등 남도 일대의 생생한 갯벌을 촬영한 사진을 선보인다.

갯벌을 찍기 위한 항공 촬영은 볼 때를 계산해 한 달에 3일 정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 사진 속엔 꾸밈이 없다. 그저 자연이 허락한 기다림과 찰라의 포착만 있을 뿐. 갯벌의 다양한 무늬는 거대한 용이 꿈틀대는 듯 힘이 넘치고, 때론 여린 꽃잎이 피어나는 것 마냥 아련하기만 하다. 또 만조와 간조가 개흙에 남긴 다양한 색은 유희를 풀어 놓은 듯 자유롭다. 그는 제2회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 전주전국사진공모전 은상, 순천전국사진 공모전佳作 등을 수상했고 서울 시간갤러리에서 한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2-738-777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송고미의 재발견'

문화재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요

국립광주박물관 30일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대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어린이들이 문화재를 감상한 뒤 이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제24회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연다.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1~6학

년 어린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학교별 40명 내외로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물감이나 크레파스 등 관련 도구는 각자 준비해야 한다. 문의 062-570-70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 56회 호남예술제 실용음악 입상자

- <심사위원> 배창희(남부대 교수) 최진영(태봉4) 최영경(동선대 교수) 마원빈(남악4) <기타(고등부)> 공담우(태봉2) <금상 최동현(동명3)> <드림(중등부)> <드림(초등부)> <은상> 박정민(광주경신1) <드림(고등부)> <은상> 최재훈 <보컬(중등부)> <은상> 전하린(살레시오여3)

'아버지' 박윤모, 또 한명의 '아버지' 이상용

"우정으로 만드는 멋진 무대 기대하세요"

연극인 박윤모(58)에게 모노드라마 '아버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작품이다. 무대에서 죽고 사는 배우에게 만만찮은 내공이 필요한 모노드라마는 아무나 갖을 수 없는 큰 자산이다. 하지만 1시간 넘는 시간을 온전히 홀로 끌고 가야하는 모노드라마는 긴장의 연속이다. 60을 바라보는 그에게도 벅찬 일. 지난 1998년 초연 후 지금까지 180여회를 홀로 무대에 올랐던 그의 곁에 든든한 '동반자'가 나타났다. 끊임없이 고교 시절 조대부고 연극반에서 함께 배우로 꿈을 키우던 친구 이상용(58)씨가 박씨와 함께 번갈아가며 한달간 '아버지'를 무대에 올린다. 6월18일까지(배우 일정은 전화로 문의) 공동예술극장.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의 희곡

때지 않으며 긴장한 모습이었다. "저도 간단한 모노드라마를 해봤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관객들을 한 시간 이상 끌어당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극중 극 형식의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풀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라 더 힘이 드네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지 망설였죠. 10년 전 친구가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봤었는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씨는 1991년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 광주에서 배우와 연출가로 활동했다. 특히 1981년 극단 '시민' 단원으로 활동하던 두 사람은 그해 처음 생긴 전국연극제에서 '소작자'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당시 박씨가 주연배우를 맡았고, 이씨는 연출상



오는 6월 18일까지 광주 공동예술극장에서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무대에 올리는 이상용(사진 오른쪽), 박윤모씨(왼쪽)를 통해 40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대부고 연극반 40년지기 친구 "서로 다른 방식의 작품 보여줄 것"

모노드라마 '아버지' 번갈아가며 공연... 내달 18일까지 공동예술극장

이 원작인 '아버지'는 고희연이 열리는 연극장에서 주인공 김호연이 11남매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풀어낸 작품. 지금까지 광주, 서울, 중국, 미국 등에서 공연됐었다. 지난 19일 광주 공연을 앞두고 극장에서 만난 이씨는 대본에서 손을

을 받았다. "아버지"를 광주 연극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싶었던 박씨는 오래 전부터 함께 무대에 설 사람을 물색해 왔다. 지역에서 활동중인 후배 연극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다" "때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던 차 친구 이씨가 떠올랐다. "4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친구니까 가장 믿을 만했죠. 나보다 훌륭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도 있었구요. 진심을 갖고 연기하는 친구니까요. 1월에 처음 제안을 하고 꾸준히 대본을 봐 달라고 부탁했죠. 두 사람이 멋진 무대 함께 만들

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후 이씨는 배우나 연출가보다는 한국배우협회 사무국장으로 6년간 활동하느라 현업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다.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대사가 전혀 입에 붙질 않는 거예요. 대본을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으면서 '내 식'대로 고쳐 썼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풀어내려 합니다. 아마도 다른 스타일의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같이 작업하면서 느꼈던 열정과 노력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이상용) '아버지'는 계속 진화한다. 극단까지 넘어선 대표가 현재 서울 종로 5가 소극장 '더 씨어터'에서 6월 6일까지 한달간 서울 지역 배우들과 공연을 진행중이다. 또 10월에는 장흥문화회관 연극 아카데미에서 활동중인 장흥 현지 주민들이 '아버지'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박씨는 10월에 한차례 더 '아버지'를 선보이며 내년 서울에서 200회 공연을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문의 062-222-7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노와 비올라 환상의 무대로

조현영·윤진원씨, 27일 금호아트홀

'흥겨운 탱고와 환상곡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조현영씨와 비올라리스트 윤진원씨가 '비올라 나이트-관타지&탱고'를 연다. 2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연주에서는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작품 73', 칼 라이네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환상곡 작품 43', 슈만의 '비

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이야기 그림책 작품 113', 피아졸라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탱고' 등을 들려준다. 조씨는 전남대 출신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전남대·조선대·순천대 등에 출강중이다. 윤씨는 경희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바로크합주단원으로도 활동중



조현영



윤진원

이다. 두 사람은 독일 쾰른 음대 문인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월... 플루트로 만나는 봄

에펠 드 플루트 앙상블 오늘 문예회관

에펠 드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중인 이현경(사진)씨가 단장을 맡고 있는 에펠 드 플루트 앙상블은 지난 2008년 창단 후 정기공연을 비롯, 태교음악회, 아시아공연예술제 문화발자길 공연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공연에는 임나경·박혜란·조민희씨 등 단원들과 주니어 에펠 드

플루트 앙상블이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비발디의 '사계중 봄 1 악장',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 베토벤의 '전원' 등이다. 티켓의 일부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다. 문의 010-3631-69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Advertisement for moviehelic featuring cinema listings for Columbus Cinema, Megabox, and Cinus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